



## 하마모토 쓰기노리 씨

1936년 1월 22일생

1970년에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음.

양친을 미나마타병으로 잃고, 아버지는 해부되고, 자신도 휠체어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염병으로 차별을 받아 어업수입이 줄어든 힘겨운 생활속에서, 짓소공장의 책임을 추궁해 나갔던 힘들었던 지난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1994년 10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최초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병자료관 증언부회 회장

미나마타시 쓰키노우라 재주

처음 뵈겠습니다. 저는 하마모토 쓰기노리입니다. 저는 옛날에, 미나마타 만과 시라누이(不知火) 해에서 양친과 셋이서 어업을 했습니다. 짓소공장의 배수에 섞인 메틸수은에 의해, 물고기, 조개류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고양이들이 발광(發狂)하기 시작해서,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3마리도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1955년에 발병하고, 양친은 1956년에 미나마타병에 걸렸습니다. 당시는 환자들을 짓소공장의 부속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구마모토대학부속병원에서 연구용환자로 받아줬습니다. 세명 다 연구용환자로 구마모토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격통으로 인해 발광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이 불명이었기 때문에 즉시 해부한 결과 뇌세포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신마비상태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운 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나마타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큰 발전을 달성했습니다. 미나마타병환자는 고도경제성장의 희생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이런상태로 계속 경제적이익만 추구해간다면, 자연은 파괴되어, 되돌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저는 지금도 미나마타병을 대신한 다른 공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매우 두렵습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에는 많은 세월과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또, 망가진 몸은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발신함과 동시에,자연보호와 인권존중을 제창하려고 합니다.